
2015부평문화포럼 '새로운 변화의 시작, 문화도시 부평'

2회차 문화도시의 자생적 운영은 가능한가?

주 최 |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후 원 | 부평구

프로그램

• 사회 : 김유정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팀장)

| 시 간 | 내 용 |
|---------------|---|
| 14:00 ~ 14:10 | 인사말 |
| 14:10 ~ 14:50 | 발 표 1. 문화도시의 지속성 확보방안 이한호 쥬스컴퍼니 대표 |
| 14:50 ~ 15:30 | 발 표 2. 사례를 통해 살펴본 문화도시 지속방안 박은실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
| 15:30 ~ 15:40 | 휴식 (Tea Time) |
| | 종합토론 |
| 15:40 ~ 16:30 | 좌 장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 토 론 김주연 홍익대 산업디자인학부 교수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

Contents

| | | | |
|-------|---------------------------|---------------------------|-----|
| 발 표 1 | 문화도시의 지속성 확보방안 | 이한호 주스컴퍼니 대표 | 7p |
| 발 표 2 | 사례를 통해 살펴본 문화도시 지속방안 | 박은실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 21p |
| 토 론 1 | 문화도시는 도시의 공유가치와 철학으로부터 시작 | 김주연 홍익대 산업디자인학부 교수 | 49p |
| 토 론 3 | 문화도시로서의 부평의 한계화 가능성 |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 53P |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건

이 한 호 | (주) 쥬스컴퍼니 대표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건

이한호 ((주)쥬스컴퍼니 대표)

1.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의 개념 검토

1) 문화도시란?

- (1) 도시민의 문화적 삶이 도시계획과 경영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도시
- (2) 도시 성장의 동력이 문화예술 산업에 기반하여, 창조적 인력들이 지속 활동하는 도시

2) 문화도시 사업 관련 정책의 이해

- (1)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지역 사회의 가치 중심 이자 시민의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장소로서 문화 도시를 육성 지원하는 정책 사업

1-1. 지역 사회의 가치 중심

- 문화가 지자체 정책 판단의 중심에 있다.

1-2. 시민의 문화적 삶

- 시민들이 문화예술 소비에 익숙하며 생산에 참여한다.

- (2)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전신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가치는 도시 문화 중심의 사회 생태계 구축 을 통한 지속가능의 도시발전 기반 구축

2-1. 도시문화 중심의 사회 생태계 구축

- 창작자, 매개자, 소비자 중심의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

2-2. 지속가능의 도시 발전 기반 구축

- 인재 육성과 연계 산업 성장을 통해 도시의 가치가 높아진다.

3) 문화도시의 자생력과 지속성 확보의 의미

- 자생력이란 '스스로 살길을 찾아 살아 나가는 능력이나 힘'을 의미하며, 지속성이란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는 성질'을 이야기 한다.
-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자생력 확보란 '지향점'이지 결과가 아니다. 문화로 돈

을 벌여 ‘자생하는’ 문화도시가 과연 존재하는가? 문화도시 사업의 자생력 확보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하고, 도시 정책 결정자들과 시민의 의지로 자원을 투입하여,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으로 문화도시의 지향점을 ‘지속’ 추구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할 것이다.

| | | |
|-------------------------------------|-----|---|
| 문화적 삶이 실현되는 지역문화융성의 핵심 사업 | 고유성 |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
| | 다양성 |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고 실현하는 문화적 삶이 있는 사업 도시의 문화적 가치자산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사업 |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가치적 고유특성을 발현하는 사업 | 창조성 |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하는 가치효과 발현 사업 문화 정책 및 사업의 효과 연속과 지속성 있는 사업 |
| | 주체성 | 문체부 정책 고유 가치에 바탕을 둔 부처간 연계 협력사업 |
|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및 발전의 원동을 제공하는 사업 | 보편성 | 창의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성장의 원천동력 개발 문화와 사회의 융복합을 통한 사회경제 활성화 |
| | 지속성 | 문화를 통한 도시의 장소가치 재조명 |

2. 부평 문화특화지역 사업, 이벤트가 아니다

아래 제시한 표에서 사업의 성과 목표의 우선 순위를 각자 체크해보자.

| 성과 | 기존 부평구 문화정책 기초 | 부평 문화특화지구 사업 |
|------------|----------------|--------------|
| 지역경제 활성화 | | |
| 주민 삶의 질 향상 | | |
| 문화적 만족도 증대 | | |
| 대외적 인지도 향상 | | |
| 지역 정체성 확립 | | |

기존 부평구 문화 정책 기조에서의 우선 순위와 현재 검토 중인 음악융합도시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할 때 지향해야 하는 우선 순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는 시민, 지자체, 문화예술인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팀 내부에서도 차이가 클 것이다. 이것은 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만큼 진지하게 짚어보자.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기존 도시 문화 정책의 기조 전반을 재정비하고, 이를 위한 거점으로서의 문화 특화 지역을 상정하는 정책 사업 실천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들이 단기 성과적 측면에서 도시 문화 정책의 맥락이나 향후 성장의 비전에 대한 검토 없이 접근하는 경우 맥락이 없는 단기 이벤트적 사업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예술 중장기 전략이 제대로 실천되는 도시가 몇 곳이나 있겠는가. 하지만 56만 인구에도 불구하고, '기초 구'단위의 열악한 재정과 고령화, 서울에 입성하지 못하는 주변부로서의 시민 정체성을 극복함에 있어 부평구와 부평문화재단이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흐름을 이어가는 문화특화지역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속성 확보, 가치와 철학이 시작이자 절반이다.

1) 가치와 철학. 끊임없이 논의하고 상기하자

| 구분 | 광주 | 부산 | 경주 | 전주 | 공주 부여 |
|-------|-----------------------------|--------------------|----------------------|----------------------|----------------------|
| 법적 근거 | 특별법 (2006.9.)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비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 영상문화도시 | 역사문화도시 | 전통문화도시 | 역사문화도시 |
| 계획 수립 | 종합계획 (2007.10.) | 종합계획 (2005.10.) | 기본계획 (2007.12.) | 기본계획 (2007.12.) | 기본계획 (2009.12.) |
| 계획 기간 | 20년 (2004~23) | 8년 (2004~11) | 30년 (2006~35) | 20년 (2007~26) | 22년 (2009~30) |
| 예산 | 5.3조원 | 1천6백억원 | 3.4조원 | 1.7조원 | 1.3조원 |
| 주요 사업 | 아시아문화전당 및 7대 문화권 특화발전 | 4대 핵심과제 | 4대 선도사업군 (65개 사업) | 4대 선도사업군 (64개 사업) | 5대 선도사업군 (57개 사업) |

지난 9월 4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는 전당을 개방했다. 하지만 핵심 사업인 7

대권역 사업은 제대로 진행조차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7대 권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방비를 확보해야함에 있어, 유니버시아드와 같은 국제 체육 행사를 비롯해 각종 도시 기간 사업들의 추진과 비교할 때 후순위로 밀리면서 확보가 미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느 순간 맥락을 놓쳤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특단이 없다면 전당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7대 권역 중심의 문화 도시 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다른 문화도시들의 상황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전제로 구상한 기존 문화도시 사업들이 가치와 철학의 혼선을 겪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영상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 전통문화도시로 표현되는 도시의 비전은 정책목표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에 가깝지 각 도시가 문화도시로서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지는 않다. 지역의 정체성에 기반하되,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도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로서의 문화도시의 가치와 철학을 초기에 정립해야 한다. 국비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시민 스스로가 도시의 가치를 내재화해서 정책의 최우선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선택하도록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진빠지는 ‘가치와 철학’ 바로 세우기 과정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부평구 문화도시 사업, 정확히 이야기 하면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37.5억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 지향하는 목표는 ‘적정해야’하며, 언급되고 있는 미군 부대 반환예정지라는 물적 영토가 주는 희망과 장기적 비전은 잃지 말자. 하지만 시설 건립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전제로 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한다.

3년 안에, 5년 안에, 그리고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걱정하게 판단해야 하고,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인천시와 부평구의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평가할 때 인프라 중심으로 구상해서는 답이 없다. 지난 2010년 건립 한 부평아트센터는 2013년 기준 27억8100만원을 운영비용으로 사용했다. 지난해까지 부평아트센터는 건립원금이 392억원이고, 연간 이용인원은 12만4573명으로 일 평균 341명이다.¹⁾ 기존 공공 문화 시설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벨트 조성을 통한 확대 전략 측면에서 인프라 조성 사업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시기는 ‘부평다운 문화를 다시 싹틔우는 시기’라는 목표만으로도 충분할

1) 2014년 부평아트센터 대극장 스프링클러 누수사고로 인한 6개월 이상 대극장 사용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수치로 2013년 수치로 대체함

수 있다. 가치와 철학을 정립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다. 부평 음악융합도시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짚어 사업 초기부터 충분이 고민해보자.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가평이 230억원의 뮤직빌리지를 조성한다. 의정부는 YG와 1천억원을 투입하여 K-Pop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가까운 광명시의 음악도시 사업은 지자체장 선거 이후 어느날 백지화되었다. 지자체 장과 외부 거대 자본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가치라면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던지, ‘우리 것’으로 만드는 치열한 노력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 음악도시는 현재 가장 경쟁력있는 문화도시로서의 키워드다. 음악도시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끊임없이 그 가능성과 해법을 확산시켜야 하고, 또 다른 부평만의 숨겨진 가치가 있다면 그것 역시 다시 한번 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2) 브랜드로서의 문화 도시

‘문화도시’ 브랜드를 통해 지역 고유의 자원은 새로운 상품성과 확산력을 가질 수 있고, 지역의 새로운 시도들은 창조적 혁신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특화 지구사업 기간은 부평 문화의 Brand Reality와 외부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Brand Image 사이의 간극을 조정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지향하는 Brand Identity를 새롭게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문화특화지구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브랜드가 적합한 가치와 비전을 통해 도시 전체를 대변하는 도시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거의 복원과 거점 공간 중심의 집적에 초점을 맞춘 상징화 전략과 포맷은 도시 문화 자원, 특히 현재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문화 자원과 역량을 부수적으로 비취지게 한다. 브랜드 소비자인 도시민과 외부인들은 그 부수적인 것에 더 열광할지도 모른다. 또한, 남들이 쉽게 밖으로 들고, 사서 나갈 수 있어야 브랜드는 성장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문화도시들이 생산하는 ‘문화’는 들고 나갈 수도, 사서 나갈 수도 없을 만큼, 무거운 경우가 많다. 공유의 시대, ‘문화 자산’은 남들이 퍼 가줘야 ‘문화’가 된다. 남들이 가져가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가지려 해야 한다. ‘진중한’ 것은 나눠 쓸 수 있도록, ‘가벼운’ 것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애매한’ 것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 때, 문화도시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

4. 문화도시, 지속성의 동력은 시스템과 사람이다.

<핵심과제 1. “문화도시 정책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문화를 바꾸어나갈 의지가 있는 도시, 부평구>를 위한 질문

- Q 1. 지역의 실정에 어두운 중앙 부처에 의존하지 않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가?
- Q 2. 담당 행정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가?
- Q 3. 지속적인 공론의 형성과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국내에서 문화도시 패러다임은 도시와 도시민의 내재적 욕구보다는, 지자체 실행 이후 전략적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하나의 도시문화전략인 경우가 많다. 국가에서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정책이나 국가 정책 모두 하향식 정책으로 지역사회로부터의 내발적 필요가 아닌 외부적 정책 요구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문화도시 사업’은 있지만, ‘문화도시’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화도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두 번째 핵심 과제는 도시 차원에서 문화도시로서의 의지에 기반한 ‘시스템의 구축’이다.

부평구에서는 이번 문화도시 사업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진지한 질문과 답이 필요하다.

<핵심과제 2. “창의 인재들의 정착과 문화 생태계의 조성”>

<창의적 인재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 부평구>를 위한 질문

- Q 1. 부평구는 문화 및 연계산업 분야의 창의 인재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 인가?
- Q 2. 이들을 위해 부평구만의 차별화된 정책과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 Q 3. 부평구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있어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부평구 문화특화지역 사업이 기대하는 음악융합도시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가? 결국 사람에서 답을 찾게 될 것이다.

변화된 도시 환경과 정부 정책은 창조적 인력의 지속 유입과 활동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부평구는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기억에 안주해 현재의 변화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러한 정책과 실천들이 필요한가? 그들의 활동이 이루어내는 성과가 과거보다 확대된 형태로 도시민의 삶과 도시 재생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재생에 대한 문화

적 방법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통시장, 마을, 폐산업시설, 공원 등 공간 자원 경쟁력 강화에 있어 문화예술 창작인력과 문화 매개인력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문화예술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화부보다 타 부처가 더 고민하는 상황이다.

창조적 인력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인력 유입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버틸 수 있는 공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봐줄 수 있는 선배들이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적 지원이나 이벤트성 사업, 혹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반론은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

부평구로서도 이들에게 매력적인 활동 거점이 되기 위한 지원의 형태와 공공의 참여 방식, 행정적 지원의 밀착도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 추진 단위와 지원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2014년 개최된 전국청년문화기획자 대회에서는 ‘지역 청년 문화 기획자란 누구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나이의 경계를 떠나 청년 정신으로 문화적 방법론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를 즐기고’있다. 단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파트너로서 그들을 인식할 때 도시는 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문화도시가 창조적 혁신, 즉 과거로 먹고사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외 인재들의 새로운 시도에 개방되어야 한다. 고유성을 중시하되 국적과 연령에 제한 없이 자원에 접근하여 시도하도록 개방형 생산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생산의 개방과 함께 문화 도시의 ‘장소’들은 단순히 머무는 곳에서 나아가 방문자들이 창작자가 되는 ‘놀이터’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문화도시를 마음껏 퍼 가게 만들어야 공공의 예산만으로 할 수 없는, 민간의 문화 사업자들이 육성될 수 있다.

<핵심과제 3. “민관 협력 기반 문화도시 통합 운영 기구 설립”>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 부평구>를 위한 질문

- Q 1. 생산과 유통, 소비의 가치사슬을 묶어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가?
- Q 2. 공공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음악도시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가?

문화재단에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문화도시 사업을 재단의 그릇에 담아둘 것인가, 혹은 재단이 촉발제가 되어줄 것인가? 본 사업의 예산이 중단되거나 부평구청장님이 바뀐 이후에도 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장담하는가? 우리는 수많은 사업들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해왔다.

문화도시의 비전과 로드맵은 시 담당부서나 문화재단에 일부 업무로 추진되기 보다는 부평구의 장기 전략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와 효율적인 민과관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과 민간 영역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문화도시 통합 운영 기구’의 설립 운영이 요구된다. 특히 부평구 음악융합도시 사업은 도시재생과 음악창작, 기획과 제작, 마케팅과 유통, 연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 체계로 구성 운영되면서 정책 단위에서 한 단계 나아간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과 운영까지 이루어져야하는 비영리 서비스 사업적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

미국 뉴욕 이스트빌리지의 FAB, 미트팩킹 지역 MPDI와 같은 비영리 조직을 통한 파트너십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문화재단의 역할과는 구분되는 문화도시 협력 기구로 구성해보자. 신규 비즈니스 발굴과 운영, 지역 전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문화적 재생을 위한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도록 하며, 가능한 독립적인 조직체로 지역내 문화 및 경제활동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이들의 회비를 통한 운영을 목표로 하자.

기존의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매개집단의 존재 자체가 문화도시로서의 지속성 확보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문화특화지역사업에 선정된 모든 도시가 이러한 중간 기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평구이기에, 음악도시라는 비전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번 사업기간은 사람을 키우고, 조직을 키우는 골든타임이다.

5. 부평구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추가 제언

1) 지역문화와 상권에 기반한 통합적 도시 재생 기반의 협력 구상

이번 포럼에서 다루기에는 논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지만, 문화특화지역사업 구상에 있어 지역 상권과 연계한 도시 재생 기반 마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부, 중소기업청간의 MOU 체결을 통해 명시된 정책 사업의 통합 목표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과 기존 도시 유희 공간에 대한 검토는 있지만, 상권과의 연계 협력 구상은 부족하다.

현재 부평문화의 거리 일원은 전국 10대 상권에 포함되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정체성을 재정비하여 성장의 기반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올해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부평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는 지역 청소년 밴드 및 음악 활동가들의 상설 공연이 야외 무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주말장터 개최를 통해 청소년 및 가족 중심의 지역민 유입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 확산에 있어서도 문화의 거리 및 지하상가 일원은 문화 관광적 요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특화지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권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한 지역민들과의 일상적 접점에서부터 음악융합도시로서의 성장 비전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이 끊어지더라도 상권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문화도시 성장의 재원으로 다시 공급될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문화도시 통합 운영기구 구성을 위한 파트너로서 지역 매개그룹 사례를 보면 하나의 이해관계자 그룹이거나 친목회와 같이 느슨한 형태의 그룹이 아니다. 지역의 동일한 비전과 목표 아래 연계된 사업과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 운영하는 전문가그룹이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에 있어 상권의 결합 구조에 있어 참고할만하다.



문화-상권 지역매개그룹의 구성

(1) 아일랜드 더블린의 템플바지역과 TASCQ

- 더블린 템플바의 지역매개그룹인 TASCQ(Traders in the Area Supporting the Cultural Quarter)는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2003년 설립한 회사임
- 조직의 미션은 ‘지역 내 문화예술, 관광, 그리고 상거래의 활성화(to promote the arts tourism, trade and commerce in the Temple Bar area)’임
- 독립적인 조직체로, 지역 내 문화 및 경제활동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회원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를 통해 조직이 운영. 현재 90여명의 조직 및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구성원을 보면 예술가뿐만 아니라 사업자, 시민단체, 거주민 등 매우 광범위한 TASCQ의 주요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 내 물리적 경관 개선: 지자체에서 담당하던 가로환경 개선사업 운영
 - 지역 내 문화활동의 진흥: 야외공연, 콘서트와 행사 및 이벤트의 기획운영
 -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정기적인 협의과정을 통한 소통창구 확보
 - 지역 전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지역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 www.visit-templebar.com

(2) 미국 뉴욕의 이스트빌리지와 FAB

- 이스트빌리지지역은 다양한 문화 관련 종사자와 시설들이 밀집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카페와 레스토랑, 샵 등이 밀집해 있음
- FAB(Fourth Arts Block)는 이스트빌리지 중에서도 east 4th street를 중심으로 밀집해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홍보와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비영리조직임
- 10여개의 문화단체, 10개의 문화시설, 17개의 공연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200,000명의 방문객과 1200여 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
- 재원은 뉴욕시청 문화과, 뉴욕시 문화예술위원회, 뉴욕커뮤니티트러스트, 뉴욕대, 뉴욕커뮤니티펀드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마련하고 있음
- 홈페이지: fabnyc.org/index.php

| FAB의 주요활동 | |
|---|---|
| 지역 내 렌탈공간에 대한 체계적 안내 | 소셜미디어의 적극적 활용 |
|  |  |

(3) 미국 뉴욕의 미트팩킹 지역 MPDI(미트팩킹 이니셔티브)

- MPDI(Meatpacking District Initiative)는 2003년 결성된 비영리조직으로 미트팩킹 지역 내 문화시설 및 상업시설 운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인연합체임
- 200여명의 파트너로 구성되어있는 MPDI는 하이라인, 랩스쿨, 푸드뱅크와 같이 지역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
-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마케팅, 캠페인활동 등을 진행
- 홈페이지: www.meatpacking-district.com



2) 가치와 철학에서 출발하는 콘텐츠 전략

몇 가지 핵심 자원을 제외하고 10년 이상의 생명력을 가지고 일반인에게 지속 소비될 수 있는 콘텐츠는 드물다. 뽀통령도 아이들에게 지나간 유행이 되고 있다. 2005년에 고민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콘텐츠는 2015년 현재, 촌스럽다. 하지만 가치와 철학을 담아낸 매력적인 도시의 코드는 시대를 초월한다. 르네상스 시대, 1960년대 뉴욕처럼 진주, 공주·부여, 경주 그리고 광주. 모두 매력적인 코드를 부각할만하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개별 자원의 콘텐츠화는 도시 문화의 코드를 담은 시점별 상품화로 판단할 때 적정 투자가 가능해진다. 단일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코드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명과 대상 타겟, 확산을 판단한다면 상품은 코드 자산으로 지속 활용 될 수 있다.

3) 문화와 사회 경제의 융복합과 광역 연계 전략

‘우리’ 자원을 ‘우리’만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산과 유통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생산, 유통하는 지역 인재들이 참여된 ‘구체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실효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문화도시 사업간 연계 협력의 출발은 자원의 공유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서 확보된 ‘아시아’는 광주만의 아시아가 아니다. 동시에 2015년 전당 개관 후 광주를 채널로 삼는 교류와 유통의 효율적 관리도 가능하다. 광주를 통해 확보된 아시아 콘텐츠도 경주/전주/공주/부여로 유통 확산될 수 있다.

문화특화지역 사업 도시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개별 도시가 해낼 수 없는 가치효과 발현과 정책의 지속성 확보의 근거가 되어줄 수 있다.

6. 마무리

부평구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정리된 발제가 아님을 전제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문화도시를 목표로 하는 도시들과 비교해 부평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과 난관이 있음은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부평구가 문화도시로서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한다는 것은 민간 단체 및 활동가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문화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구상하겠다는 문화계획적 접근에서 부평구가 시스템과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년의 성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부평구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추미경. 2013 문화도시문화마을포럼 발제자료

이한호. 2013 문화도시문화마을포럼 토론문

김광욱. 2013 광주광역시 문화마을 자생력 제고 방안 연구

사례를 통해 살펴본
문화도시 지속방안

박 은 실 |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문화도시 지속방안



2015.10
박은실

1

목 차

1. 문화도시 개념 및 정책
2. 해외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 사례
3.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사례 및 시사점
4. 인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언





01.1. 문화와 도시: 문화도시 발전과정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 시기 | 패러다임 | 이론가/계획가 | 문화를 활용한 도시계획 및 전략 | 문화정책 개념 및 목표 |
|------------|-----------------------|----------------------------|---|---|
| 1900-1910s | 예술로서의 도시 도시미화 운동 | 하워드 대니얼 번햄 | -파리&비엔나 모델 -전원도시 -도시미화운동 -시카고 계획 -캔버라 계획 | -예술을 위한 예술의 시기 -경제와 분리된 고급예술의 지원 -정부의 리더십 강력 작용 -문화예술 전문기관, 예술가 양성 |
| 1910-1950s | 문화조닝 | 할 랜드 바들로매 패트릭 아버크롬비 | -근린문화센터, 공원 -도시기능과 포스트WW2, 마스터플랜 -대런던계획 | -문화복지, 시민문화의식 고양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정책 -시민문화예술 센터 보급 |
| 1960-1970s | 커뮤니티 문화 | 제인 제이콥스 | -커뮤니티 문화예술 개발 -문화유산 보존 운동 -예술과 스포츠센터 -사회적 계획 | -문화분권, 민주화 시기 -문화정책에 지역사회 참여, 여성, 청소년, 인종, 소수계층의 관심 -시민의식 고양, 공동체 문화 |
| 1960-1970s | 선도적 문화시설 | 로버트 모제스 | -링크센터/ 케네디센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예술과 고용창출 시기 -성장주의 경제정책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과 관광전략 -전자예술의 등장 대중예술 확대 |
| 1980-1990s | 문화개발 도시재생 장소마케팅 | 도시행정가 파스칼 마샬 샤론 쥬킨 | -도시문화재생과 문화산업 -축제마켓플레이스/ 도시마케팅 -지역경제개발 전략 -문화산업 클러스터 -유럽문화도시의해 -바르셀로나, 빌바오 | -문화정책과 도시마케팅 시기 -문화산업적 접근의 시기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혼합된 문화시설 개발 전략 -문화정책과 문화개념의 확대 -창조산업 가치사슬 |
| 1990-2000s | 문화계획 | 그레고 드리즌 콜린 머서 그렘 에반스 | -통합적 문화도시 계획 -문화 활용 공공정책 -글래스고우 | -문화전략과 도시개발 통합시기 -거버넌스의 발달과 시민참여 -문화다양성, 지역분권, 소수문화 |
| 1990-2000s | 창조도시 | 리처드 플로리다 찰스랜드리 앨런 스콧 | -창조경제/창조산업 -유네스코 창의도시 -창조도시/창조계층 -허더스필드, 헬싱키, 베를린 | -창조경제와 창조산업의 발달 -지역창의성 증진/ 창조계층 등장 -창의성을 둘러싼 영역 확대 -문화활동은 사회 전반에 걸쳐 예술가치 확산 |
| 2000- | 지속가능한 개발 | 뉴어버니즘 유네스코 CABE | -문화와 삶의 질 -창조클러스터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권 시기 -환경과 윤리 문제 전지구적 확산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및 활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 |

박은실, 2014, 창조도시를 넘어서

01.2. 문화와 도시: 지역문화 정책 환경변화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지역문화 환경변화

| 지역문화와 연계된 사회적 여건 변화 | 문화의 가치와 문화적 삶의 가치 확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인구 변화)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지방에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급속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성장률) '06) 0.49 → '10) 0.46 → '14) 0.41 - (지방인구 변화) '15년 이전 전남·강원에서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지방인구 급격 감소 예상 - (노인인구 증가) '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4.5%로 고령사회 진입 * '13년 현재 17개 특별·광역시체단체 중 이미 노인인구 14% 이상 고령사회에 접어든 광역자치단체가 7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 인식 증대) (문화의 사회적 가치 증대) 급속한 경제성장, 도시화, 고령화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 및 비용 발생과 이를 해소하려는 사회적 요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적 가치 회복 및 사회적 안전망 역할 수행 기대 • (문화민주주의 개념 확산)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주체로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 (문화자치 필요성 증대) |
| 지역문화관련 법 제정 및 시행 | 실질적인 문화분권화의 확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 및 지역의 역할을 토대로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문화기본법('13.12.30.) 제정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문화진흥법('14.1.28.) 제정 • (지역문화의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법 시행에 따른 기본요건의 충족으로 문화부는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기본체계 구축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양)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권한이양 또는 지방에 시설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문화정책을 강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으로의 이양) 중앙부처 소관 지역문화사업의 대규모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별 문화정책 추진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등 문화부의 24개 사업 356억원 이양('05년) • (지특회계로의 전환) 지역문화 관련 계정의 지특회계 이관과 포괄보조금 방식 도입으로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성 강화 |

01.2. 문화와 도시: 지역문화 정책 환경변화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지역문화 주요 동향

| 전문기관 및 문화시설 기반으로 지역문화정책 강화 | 지역의 문화적 가치 재발견·재창조 지역발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재단 설립 운영) 지역의 문화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 기능 강화 • 지역문화재단 현황('14.12월 말) : 광역 13개, 기초 49개 등 총 62개 • (지방문화원 역할 증대) 지역의 문화가치를 제고하고 활성화하는 문화주체로서 지방문화원의 위상 상승 및 역할 강화 • (지역문화기반시설 증가) 지속적인 문화시설 확충으로 인한 지역공공문화기반 시설의 획기적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창의도시 지향)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문화가치를 제고하고 사회경쟁력을 높이는 도시발전 • (마을단위 문화활성화) 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고유한 지역가치와 삶의 문화를 찾고 향유하는 작은마을 단위 지역문화 활성화 • (지역가치의 재발견 및 재창조)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문화자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문화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 지역문화가치의 재발견 • (지역문화 성공사례 증가) 지역고유자원과 문화, 역사를 활용한 축제,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증가 |
|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체험형 지역문화사업 전개 | 일상적 문화향유의 중요성과 기회가 증가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수요 증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활동 활성화 • (맞춤형 지역문화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이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수요자 기반의 맞춤형 문화 활동 증가 • (문화공간의 유연성 확대) 지역문화공간의 다변화, 다목적화, 가변화로 문화예술과 일상생활을 연결, 주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와 접할 수 있고(도서관+전시실+체험+공연+판매 등),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확대(공원, 역, 자치센터, 골목, 로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문화증대)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한 인식 증가로 여가활동으로서의 일상적인 문화향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문화향유계층의 확대) 과거 특정 소수 계층에게 한정되었던 문화 참여 및 창조 활동은 일반대중에게 그 기회가 빠르게 확산 • (노년층의 문화참여) 고령화에 따른 노인여가 인식이 확대되어 문화활동에 소극적이었던 노년층의 문화 참여와 향유 기회가 확대됨 |

01.3. 문화와 도시: 지역문화, 문화도시 관련정책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3-1. 지역문화 관련정책

| 구분 | 법 | 계획/정책 | 추진기구/주체 |
|--------------|-------------------------|--|--|
| 지역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역위)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시도생활권발전협의회 |
| 지역문화 문화도시 | | 문화융성 동아시아문화도시지정 및 육성 | 문화융성위원회 (대통령소속)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기본계획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
| | 문화기본법 |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문화부) 문화권신장, 문화영향평가제도 | 문화부 |
| |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문화부)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 (시도) 문화도시 지정 | 문화부 지역문화협력위원회/지자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
|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법 | 문화다양성증진기본계획 (문화부) | 국무총리실 문화다양성위원회 |
| 도시재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 국토종합기본계획에 반영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지자체 등) |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7

01.3. 문화와 도시: 지역문화, 문화도시 관련정책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3-2.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

< ※ 고려사항 >

- ① 지역특성 : (대중소)도시, 농산어촌, 도농통합(특수상항 포함)
- ② 창조공간 : 지역내(근린), 지역전체(시군구 단위), 지역간(광역 경제권 또는 광역경제권간 초광역적 공간)
- ③ 창조기반자원 : 자연환경 자원, 역사문화(유명인물 포함)자원, 지역특화 산업 자원 등
- ④ 창조산업/기업 : (1인)창조기업, SOHO, Joint Venture,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조합, 주민주식회사, 사회적 기업 등

| | 지역내 | 지역전체 | 지역간 | | | | | |
|---------|--|------|-----|------|------|--|---------|-------------|
| | | | 권역 | 벨트 | 네트워크 | | | |
| (중소)도시형 | | | | 창조공간 | | | 자연환경 자원 | |
| 농산어촌형 | | | | 지역특성 | | | 창조자원 | 역사문화(인물) 자원 |
| 도동연계형 | | | | 산업기업 | | | | 지역특화산업 자원 |
| | 문화예술산업, 민속전통산업, 지식정보산업, 환경생태산업 등 (1인) 창조기업, SOHO, (Joint) Venture, 조합, CB(community business), 주민주식회사, 사회적 기업 등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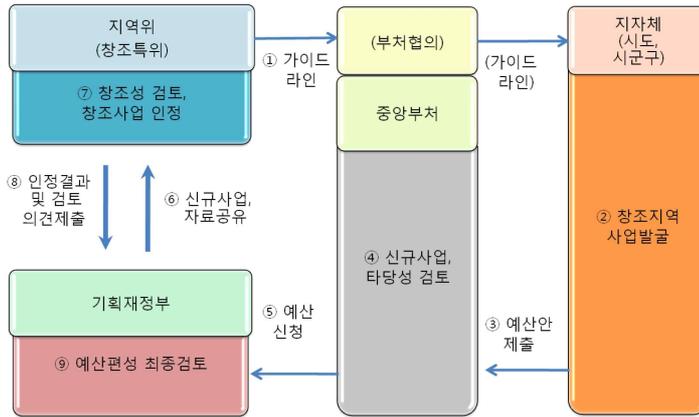
8

01.3. 문화와 도시: 지역문화, 문화도시 관련정책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3-2.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 추진체계

☒ 창조지역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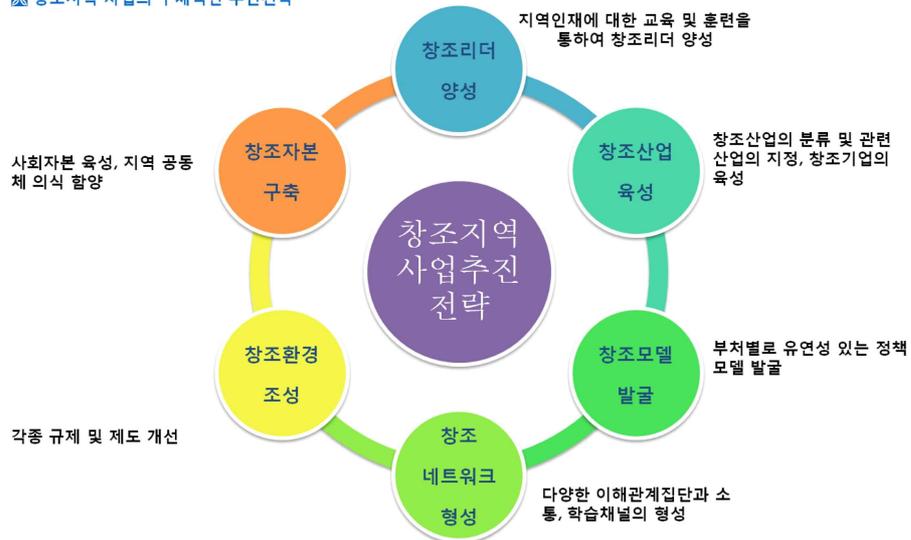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의 이해

01.3. 문화와 도시: 지역문화, 문화도시 관련정책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3-2.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 추진전략

☒ 창조지역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전략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의 이해

01.3. 문화와 도시: 지역문화, 문화도시 관련정책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3-3. 문화도시 지정

○ 문화도시의 지정(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로 문화도시 지정

| 구분 | 경주 역사문화도시 | | | 전주 전통문화도시 | | | 공주 부여 역사문화도시 | | |
|-------|---|-----|---------------|---|-----|-------------|---|-----|-------------|
| 비전 | 천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 | |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 | | 역사를 재현하는 부여 문화를 창조하는 공주 | | |
| 기간 | 2006~2035(30년) | | | 2007~2026(20년) | | | 2009~2030(22년) | | |
| 예산 | 3조 3533억원 | 국 비 | 1조7,662억(53%) | 1조 7,109억원 | 국 비 | 4,112억(24%) | 1조 2,577억원 | 국 비 | 4,001억(32%) |
| | | 지방비 | 1조1,799억(35%) | | 지방비 | 9,333억(55%) | | 지방비 | 5,019억(40%) |
| | | 민 자 | 4,072억(12%) | | 민 자 | 3,564억(21%) | | 민 자 | 3,557억(28%) |
| 사업 내용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65개 사업) | | | 한식·한옥·한지·판소리 등 전통문화자원 보존·계승·활용,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65개 사업) | | | 백제향도 골격의 체계적 회복과 재생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지원화(57개 사업) | | |

○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지원

-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도시형은 연간 7.5억원을 5년간, 마을형은 연간 2억원을 3년간 지원
- *14년도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2개소 → '15년도 문화도시 7개소, 문화마을 13개소
- * 지역발전특별회계(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예산: 국비 40%, 지방비 60%

(군산) 국토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근대건축물 정비, 주거재생, 경관정비, 하버파크 조성 등/국비 100억)
+ 문체부 문화도시사업(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등 시민예술촌 운영/37.5억원)

(청주) 국토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국비 250억)+ 문체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국비 5억), 16 문화도시사업(37.5억)

01.3. 문화와 도시: 지역문화, 문화도시 관련정책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3-3. 문화도시지정 신청서(안) / 문화부

|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구성 | |
|--------------------------|--|
| 1. 도시현황 및 여건 | 1-1. 도시 일반현황 위치 / 도시행정 / 인구 / 사회 / 경제 / 자연 등 1-2. 도시 문화환경 및 자원현황 (법정) 지역문화전문인력(휴먼웨어)/ 문화공간 및 장소(하드웨어)/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그 외 지역 가치자산 1-3. 문화특화지역사업(또는 문화도시사업) 추진현황 |
| 2. 문화도시 가치 | 2-1. 문화도시 가치 비전 및 핵심가치/ 지정분야 (법정) 2-2. 문화도시 조성방향 추진목표/ 추진방향/ 추진전략 2-3. 기대효과 |
| 3. 문화도시 조성계획(안) | 3-1. 사업개발 및 추진계획 (법정) 사업추진 기본구조/ 사업추진계획 기본(안)/ 사업계획 세부내용/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3-2. 지정분야 특성화 계획 (법정) 도시문화 특성화 방향 및 전략/ 핵심사업 추진 활성화계획/ 도시문화 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 계획 |
| 4. 문화도시 추진 및 관리체계 | 4-1. 문화도시 추진체계 추진체계도/ 추진조직 구성/ 추진유관기관 및 단체 협업구조 4-2. 도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운용 (법정) 전문인력 양성 및 운용방향/ 전문인력 지원 및 관리계획 4-3. 문화도시 관리체계 추진과정 모니터링 체계 및 방식/ 사업자체평가 체계 및 방식 |
| 5. 투자재원계획(안) (법정) | |
| 6. 문화도시지정단계 사업추진계획 | 6-1. 문화도시 지정단계 사업추진 세부계획 6-2.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도시 의견 수렴결과 |

12



02, 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1-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특징

- 유네스코의 역할
 - 창조도시를 선정하는 기준과 지침을 세움
 - 국제 NGO 단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함께 신청서 평가
 - 가입도시들의 향후 활동을 감독하고,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회의 개최
 - 유네스코 창조도시로 가입이 승인되면 '유네스코 창조도시'라는 공식명칭 사용, 재정지원이나 행정적 도움은 지원되지 않는다.



현황

| 주제 | 지정도시 현황(69 도시, 32 국가) |
|--------|---|
| 디자인 | 베를린(독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아르헨티나), 몬트리올(캐나다), 고베, 나고야(일본), 신천(중국), 상하이(중국), 서울(한국) , 생떼띠엔(프랑스), 그라츠(오스트리아) |
| 민속예술 | 아스완(이집트), 산타페(미국), 가나자와(일본), 이천(한국) , 항저우(중국), 퍼커두(미국), 파브리아노(이탈리아) |
| 문학 | 에딘버러(영국), 멜버른(호주), 아이오와 시티(미국), 더블린(아일랜드), 레이카비크(아이슬란드), 크라쿠프(폴란드) |
| 미디어 예술 | 리옹(프랑스), 앙기앙레벵(프랑스), 삿포르(일본), 광주(한국) |
| 음악 | 볼로냐(이탈리아), 글래스고우(영국), 세비아(스페인), 겐트(벨기에), 보고타(콜롬비아) |
| 음식 | 포파얀(콜롬비아), 청두(중국), 오스터순드(스웨덴), 전주(한국) , 자홀레(레바논) |
| 영화 | 브래드포드(영국), 시드니(호주), 소피아, 부산(한국) |

14

02.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1-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한국 (서울, 이천, 전주, 광주, 부산)

평가기준

- 주제분야가 해당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산업 함
- 동 주제분야의 자산/사업/정책 실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함
- 실적과 향후 계획을 구분하여 기술
- 장기적이고 확고한 정책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
-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

02.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1-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신청서

| 항목 | |
|--------------------|---|
| I. 서론 | 1. 요약문(신청사유 및 목적, 관리주체, 도시의 행정 및 재정 구조) |
| | 2. 도시개요 및 일반정보(지리적 위치, 도시구조, 기반시설, 특징, 라이프 스타일) |
| | 3. 도시에 관한 수치상 정보(인구, 경제 등) |
| | 4. 정부 (정치적 환경에 관한 정보) |
| II. 문화자산 | 5. 역사적 배경 |
| | 6. 문화적 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극장, 문화센터, 도서관 등) |
| | 7. 재정(편성예산, 주요재원,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
| | 8. 문화 홍보 및 보급 |
| | 9. 창의산업 (사회, 문화, 경제 발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및 전문기관 등) |
| | 10. 대중 인식 증진 노력 (각종 시상제도 및 인증 프로그램, 지역 신문, 잡지, TV 등의 지역미디어, 출판, 무역 박람회, 각종 회의, 국제적 수준의 이벤트 등) |
| | 11. 최근의 창의적 활동 현황 (창의산업 부문 종사자 수, 직업의 종류, 최근 5년간 창출된 직업 수, 도시재생 계획 등 창의성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 소개 등) |
| | 12. 교육/조사연구/역량강화 (창의적 분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수, 창의적 분야와 관련된 교육기관 명단, 다양한 자격증/인증제도, 창의적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매년 졸업생 수, 창의적 분야에서 수상경력이 있거나 널리 알려진 교수, 국제적 명성 등) |
| III. 창의적 파트너십 & 활동 | 13. 관련사업 |
| | 14. 공공/민간 분야 파트너십 |
| | 15. 국제적 협력 (국제 사업 및 파트너십) |

02.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1-4.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추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자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함.

- 1단계 자문(신청희망도시)
: 해당 도시의 신청 가능성에 대한 의견 제시
- 2단계 자문(신청추진도시)
: 지자체의 신청서 작업 추진 시 구체적 검토 의견 제공



17

02.2-1. 유럽문화수도(ECOC) 개요 및 절차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개요

☐ 유럽문화수도 (European Capital of Culture, ECoC)

: 유럽연합이 선정하는 유럽문화수도의 해 사업

- 그리스 문화장관 멜리나 메르쿠리의 발의로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 의해 1985년 6월 출범함
- 유럽의 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 그들이 공유하는 특징을 조명하고, 유럽 시민들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유럽시민의식을 고양하고자 함.
- 주체 : 유럽연합각료이사회가 유럽문화수도 타이틀을 수여하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

선정절차/단계



- 후보도시 지원의사표명은 해당연도 6년 전까지 이루어져야 함.

| 시기(n: ECOC 이벤트 시행년도) | 절차상 단계 | 주체 |
|----------------------|---------------------------------|-------------------------|
| n-6 | 신청서 접수 | Member state(MS) |
| n-6+10 months | 신청마감 | Candidate cities |
| n-5 | 해당 도시의 예비심사를 위한 선정위원회의 , | MS |
| n-5+9 months | 최종선정을 위한 선정위원 회의 | MS |
| n-4 | 각 도시로부터 EU기관들에 신청서 송부 | MS |
| n-4+ 3 months | 유럽의회에서 보고서 검토, 의견제출 | European Parliament |
| | 집행위원회에서 3개월 이내에 추천서 작성, 임명 | EU council of Ministers |

출처 : Guide for cities applying for the title of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Europa.

02.2-2. 유럽문화수도(ECOC) 단계별 발달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 단계 | 성격 | 특징 | 비고 |
|--|-------------------------------|---|--|
| 1단계(1985-1996) ECOC 도입시기 12개 주 | -정부간 이니셔티브로 추진 -정부차원의 프로그램 | -장기적인 계획, 법적인 계획보다는 2년 이하 단기성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 -ECOC 예산 범주 내에서 사업 진행 | 글래스고우 (1990) 안트베르펜(1993) 코펜하겐(1996) * 이 시기에도 세 도시는 이례적으로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프로그램 운영 |
| 2단계(1997-2004) ECOC 도약시기 14국 19도시 | -EU 차원의 문화 정책으로 정착 |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ECOC 예산 범주를 넘어서 중요한 EU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음 | -2000년 유럽문화 2000(culture 2000) 사업 지원 (칼레이도스코프) -EU 재정지원 급증 시기 |
| 3단계(2005-2019) ECOC 확대시기 29국 29도시 (10 new EU members, 2004 이후 조인) | -EU 차원의 법적 체계를 갖춘 | -유럽연합조약의 공식적인 의제가 됨 -커뮤니티 액션플랜과 공헌 부문 -2013년 유럽의회는 다음단계 (ECOC 2020-2033) 를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함. -2005년부터 |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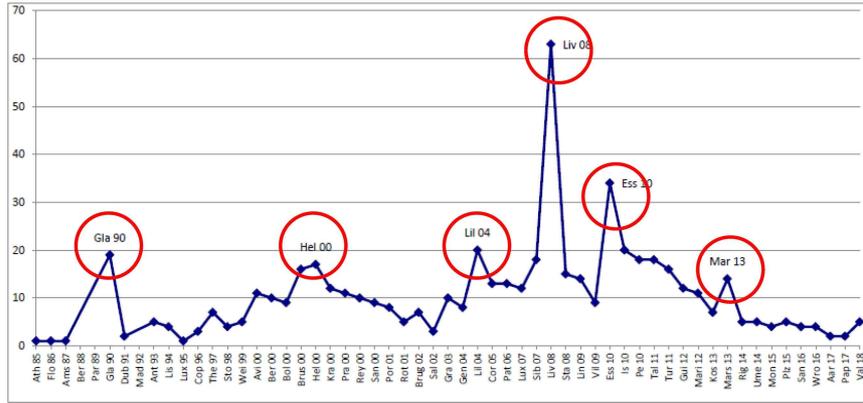
02.2-3. 유럽문화수도(ECOC) 단계별 전개과정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 단계 | 도시/국가 | 정책 변화 | 비고 |
|------------------------|---|--|---|
| 1단계 (1985-1996) | 1985 Athens (Greece) 1986 Florence (Italy) 1987 Amsterdam (the Netherlands) 1988 Berlin (Germany) 1989 Paris (France) 1990 Glasgow (United Kingdom) 1991 Dublin (Ireland) 1992 Madrid (Spain) 1993 Antwerp (Belgium) 1994 Lisbon (Portugal) 1995 Luxembourg (Luxembourg) 1996 Copenhagen (Denmark) | 1985 ECOC "유럽문화도시의 해" 시작 1990 유럽문화의 달 지정(European Cultural Month) 1992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공동체에 문화분야 고유한 권한 부여 (128조) 1993 EUROPEAN Cities& ECOC (1985~1993) 평가 실시 1996 Kaleidoscope 프로그램 시작 | 1983 그리스 문화 장관 엘리사 메트쿠니 주장 |
| 2단계 (1997-2004) | 1997 Thessaloniki (Greece) 1998 Stockholm (Sweden) 1999 Weimar (Germany) 2000 Avignon (France), Bergen (Norway) Bologna (Italy), Brussels (Belgium), Cracow (Poland), Helsinki (Finland), Prague (Czech Republic), Reykjavik (Iceland), Santiago de Compostela (Spain) 2001 Rotterdam (the Netherlands) and Porto (Portugal) 2002 Bruges (Belgium) and Salamanca (Spain) 2003 Graz (Austria) 2004 Genoa (Italy) and Lille (France) | 1997 새로운 단계 시작. 새로운 회원, 비회원 지정 1999 "유럽문화수도"로 명칭 변경하고 유럽연합 사업으로 추진. 새로운 선정절차와 평가기준 마련. CULTURE 2000 에서 지원 (2005~2019) 2004 ECOC (1994~2004) 평가 실시 | 1999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결정 (Decision 1419/1999) |
| 3단계 (2005-2019) | 2005 Cork (Ireland) 2006 Patras (Greece) 2007 Luxembourg (Luxembourg) and Sibiu (Romania) 2008 Liverpool (United Kingdom) and Stavanger (Norway) 2009 Vilnius/Lithuania, Linz/Austria 2010 Essen/Germany, Pécs/Hungary, Istanbul/Turkey 2011 Turku/Finland, Tallinn/Estonia 2012 Guimarães/Portugal, Maribor/Slovenia 2013 Marseille/France, Košice/Slovakia 2014 Umeå/Sweden, Riga/Latvia, Sarajevo/Bosnia Herzegovina 2015 Mons/Belgium, Plzeň/Czech Republic 2016 San Sebastián/Spain, Wrocław/Poland | 2005 순환시스템 도입 해당연도 회원국에 지정 권한 부여 (Decision 1419/1999). 매년 2개 도시 선정 가능 2009 New EU 회원국 선정 (Decision 649/2005/EC) 2010 새로운 ECOC 선정절차 마련: 두 범주로 구분(유럽적 차원, 도시와 시민들 차원)하여 프로그램 제출4단계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예비선정-최종선정-지정) (Decision 1622/2006/EC) | 2006 (Decision 1622/2006/E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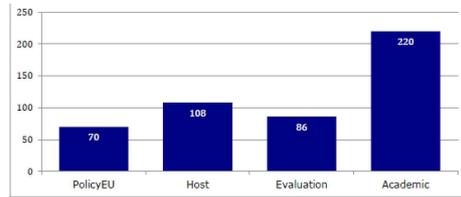
02.2-4. 유럽문화수도(ECOC) 도큐멘테이션 현황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ECOC 장기효과 비교연구, EU PARLIAMENT, 2013

Source: ICC Document mapping



Source: ICC Document ma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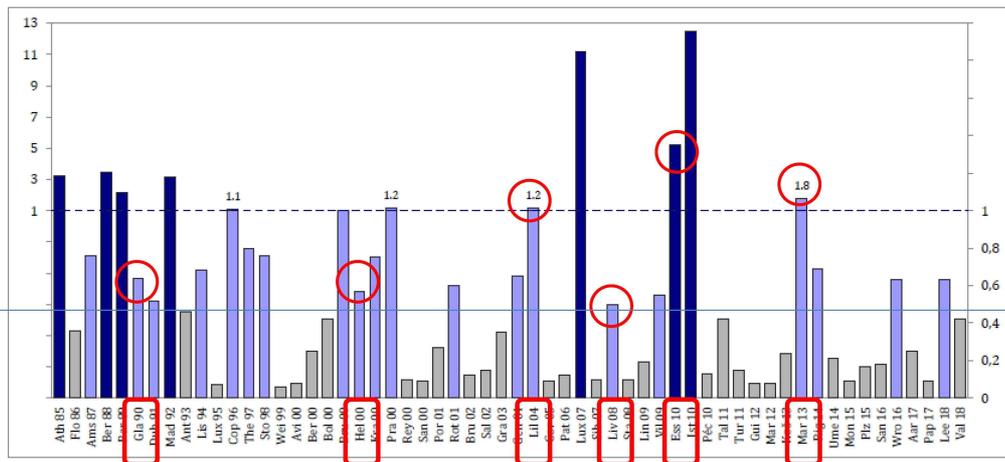
- 발간된 EU 정책보고서, 주최도시 발간문서, 평가 보고서, 연구보고서 등을 합산.
- 총합이 많은 글래스고우, 헬싱키, 릴, 리버풀, 에센 사례 비교

21

02.2-5. 유럽문화수도(ECOC) 인구 규모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Figure 7: ECOC population size (in million inhabitants)



- 대부분의 문화도시 100만명 미만. 30~60만명 도시 대다수
- 글래스고우(60만명), 헬싱키(58만명), 릴(23만명/연합120만명), 리버풀(47만명), 에센(62만명/연합140만명)
- * 인천 부평구 인구 (56만명/2013년)

22
ECOC 장기효과 비교연구, EU PARLIAMENT, 2013

02.2-5. 유럽문화수도(ECOC)수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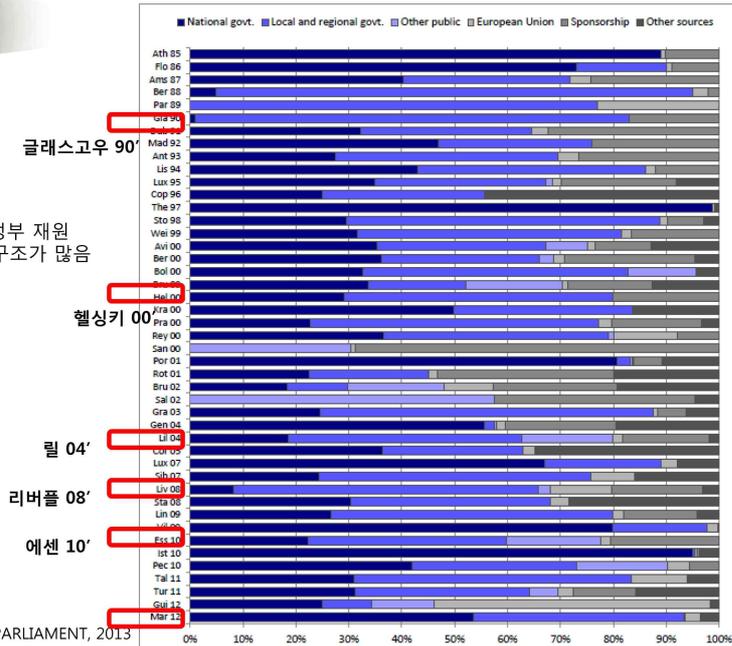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Figure 15: % Income by source for ECOCs 1985-2012, by ECOC

성공적 평가 도시

- Glasgow 1990
- Lille 2004
- Liverpool 2008
- Essen-Ruhr 2010 등

-정부재정지원보다 도시나 주정부 자원 또는 공공자원, 후원 등의 수입구조가 많음
-EU 지원규모는 비슷한 수준



02.2-5. 유럽문화수도(ECOC)수입구조/EU 재정지원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EU 재정지원 프로그램

| Table 1: EU programmes supporting culture | | | |
|---|---|--------------------------------|---|
| Year | Programme(s) | Budget | Key areas of support |
| 1996-1999 | Kaleidoscope | € 36,7 million ECOC 지원 | Support for cultural creation in Europe through cooperation |
| 1997-1999 | Ariane | € 11,1 million | Support for the book and reading sector |
| 1997-1999 | Raphael | € 30 million | Cultural heritage |
| 2000-2006 | Culture 2000 | € 236,5 million ECOC 지원 | Cultural cooperation in all artistic and cultural fields, except audiovisual |
| 2004-2006 | Bodies active at European level in the field of culture | € 19 million | Support for European organisations in the field of culture (culture, remembrance, minority languages) |
| 2007-2013 | Culture 2007-2013 | € 400 million | Cross-border cultural cooperation in view of encouraging the emergence of European |

02.2-6. 유럽문화수도(ECOC) 성공적 평가 도시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Economic impact

Lille 2004:

- **22% more jobs** in culture
- **15% more jobs** in accommodation

Liverpool 2008:

- **£800 million** in economic impacts

Social and cultural impact

Lille 2004:

- **4,000 journalist visits**

Liverpool 2008:

- **70% of residents** visited a museum in 2008

Linz 2009:

- **67,000 children** took part

02.2-6. 유럽문화수도(ECOC) 선정을 위한 기준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선정 기준

- 해당 프로그램이 유럽인들이 공유하는 예술적 운동과 스타일을 강조하는가
- 해당 프로그램이 타 도시민들의 문화활동 참여와 지속적 문화협력을 제고시키는가
- 해당 프로그램이 창조적 활동(creative work)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가
- 해당 프로그램이 유럽의 대다수 일반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 해당 프로그램이 유럽인들의 방문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 해당 프로그램이 유럽문화와 다른 지역의 이질적 문화 간 교류를 촉진시키는가
- 해당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도시의 문화생활 영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가
- 해당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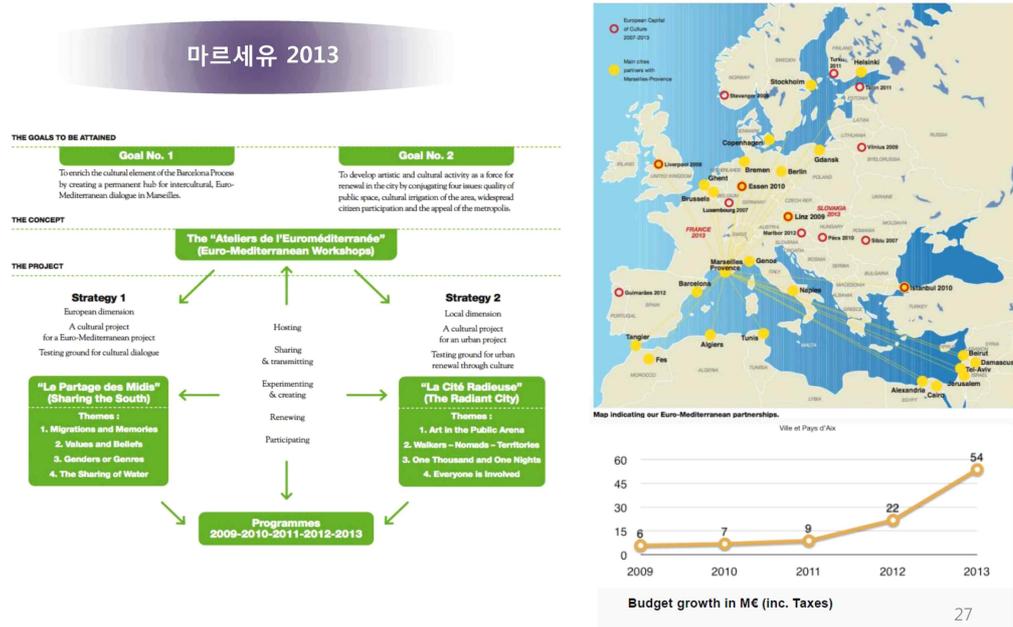
2006 (Decision 1622/2006/EC) 2가지 차원의 프로그램, 주최국 순환형으로 변경

| 평가기준 | 프로그램 내용 |
|----------------------------------|--|
| 유럽차원 (The European Dimension) | i) 문화 전 영역에 있어서, 관련 회원국의 문화업계·예술가·도시와 다른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ii) 유럽에서 문화다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하며 iii) 유럽문화의 공통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
| 도시와 시민 차원 (City and Citizens) | i) 도시와 근교에 거주하는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이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민의 이익을 가져오며 ii) 지속가능한 성격을 가지며 도시의 장기적인 문화적·사회적 발전의 일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

26

02.2-6. 유럽문화수도(ECOC) 사례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02.2-7. 유럽문화수도(ECOC)평가 지표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평가

- Ex-post Evaluation of the 2013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 2006년 결정에 규정된 목적과 기준에 따라 변화된 정책을 반영한 2013년 사업평가
- 전년도 유럽문화수도에 대한 평가보고서 법적 근거의 표준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독립적인 평가

| 일반적 목표 | 지표 |
|---|--|
| 유럽문화의 다양성 보호 육성, 공동의 기능 강조, 도시의 장기발전에 문화의 기여를 촉진 | 유럽 및 유럽문화에 대한 시민 인식 문화적으로 역동적인 국가적/국제적 인식 |
| 세부 목표 | 지표 |
| SO.1: 초국가적 협력 등을 통한 도시문화, 다양성과 유럽차원 향상 (The European Dimension) | -ECOC 문화 프로그램의 프로젝트와 이벤트의 총 수 -ECOC 문화 프로그램 규모 -ECOC 문화 프로그램 내에서 유럽 국가 간 공동 작업의 수 (해외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아티스트의 비율) |
| SO.2: 문화의 접근성과 참여확대 | -관람객, 참여자의 수 -지역주민의 참여율 (청소년, 장애인, 문화적 소외자 그룹 참여 포함) |
| SO.3: 문화 및 창조적 분야의 역량 강화와 타 분야와의 연계 | -문화기반시설, 장소와 시설에 대한 투자 -지속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과 문화거버넌스 -후원그룹 및 기업의 투자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 |
| SO.4: 문화를 통한 국제 이미지 제고 | -방문객 증가 -홍보 및 미디어 노출 -이미지 향상 -ECOC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

Ex-post Evaluation of the 2013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02.2-7. 유럽문화수도(ECOC)평가-마르세유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 일반적 목표 | 지표 |
|--|--|
| 유럽문화의 다양성 보호 육성, 공동의 기능 강조, 도시의 장기발전에 문화의 기여를 촉진 | -유럽 및 유럽문화에 대한 시민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 프로젝트 Euro-Mediterranean 테마, 25% 프랑스 웨스턴 컬처와 지중해 문화 연계 -문화적으로 역동적인 국가적/국제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 응답자 ECOC 마르세유 2013 프로그램이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 답변 |

| 세부 목표 | 영향 지표 |
|-------|---|
| SO.1 | -ECOC 문화 프로그램의 프로젝트와 이벤트의 총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0개 ECOC 문화프로젝트 • 600 개 프로그램 제작 또는 공동제작 마르세유 프로방스 연합에 의함 2013 -ECOC 문화 프로그램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천만 유로 투자 2009~2013년 • 3천800만 유로, 2013년 -ECOC 문화 프로그램 내에서 유럽 국가 간 공동 작업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65%는 프로젝트의 구현이 유럽차원의 프로그램임을 보고 • 18% 유럽의 파트너조직의 참여, 7% 다른 유럽국가에서 활동 발표, 3%는 코시케에서 사업자와 파트너십 형성 |
| SO.2 | -관람객, 참여자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1백만 관람객 2013년, 1백 80만 MuCEM • 1백 70만 관람객 야외 이벤트 참여 (Opening Weekend, Folle Histoire des arts de la Rue, TransHumance, Révelations 1 à 8 (Groupe F), Métamorphoses) -지역주민의 참여율 (청소년, 장애인, 문화적 소외자 그룹 참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 시민 프로그램 참여, 67% 시민 프로그램 참여 (무료 야외공연 제외) • 참여자 중 83% 시민 1개 이상 프로그램 참여, 참여자 중 23% 5개 이상 프로그램 참여 • 52% 시민 MuCEM 관람, 참여자의 66% 미래 프로그램 관람 의사, 2013 1~6월, 236,000 학생 프로젝트 참여 |

29

02.2-7. 유럽문화수도(ECOC)평가-마르세유 2013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 세부 목표 | 영향 지표 |
|-------|---|
| SO.3 | -문화기반시설, 장소와 시설에 대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억6천5백만 유로 시설투자, 2013 건립시설 MuCEM, the Villa Méditerranée, the FRAC, the Conservatoire d'Aix-en-Provence, the Théâtre de la Joliette and the Centre International des Arts en Mouvement d'Aix-en-Provence -Renovation of existing venues including the Palais Longchamp -지속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과 문화거버넌스 -후원그룹 및 기업의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7개 기업 1천6백5십만 유로 후원, 2백만 유로 마르세이유 프로방스 메세나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 |
| SO.4 | -방문객 증가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방문객 증가, 17% 외국인 방문객 증가, 9% 숙박객 증가, 22% 마르세유 항구 크루즈 25% 관광객 세금 증대, -홍보 및 미디어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757 회 미디어 노출, 3천 7백만 유로 홍보 효과, 81% 방문객 ECOC 마르세유 2013 인지 -이미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지역 관계자들,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이 이미지 증대 효과 있었다고 응답, 76% 응답자 이미지 증대 효과 있음. • 문화향상(80%), 세계화(79%),다이내믹(79%), 호감도 -ECOC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 시민 ECOC 마르세유 2013 인지, 83% 마르세유 프로방스 로고 인지, 52% ECOC 마르세유 2013 프로그램 정보 인식 |

30



3. 문화도시 조성 지속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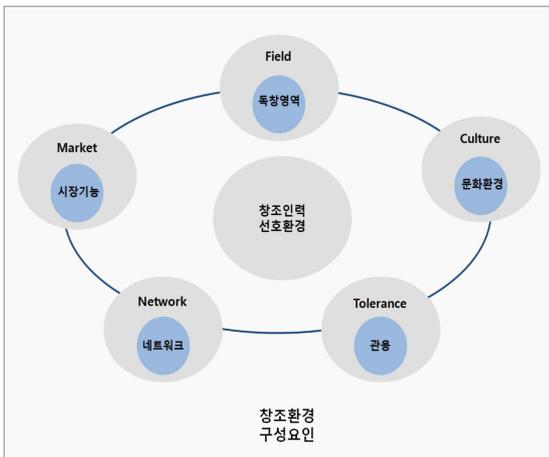
- 전략 1. 창조생태계 조성
- 전략 2. 통합적인 문화계획
- 전략 3. 민관협력 시민참여
- 전략 4. 초협력 네트워크

31

03.1-1. 창조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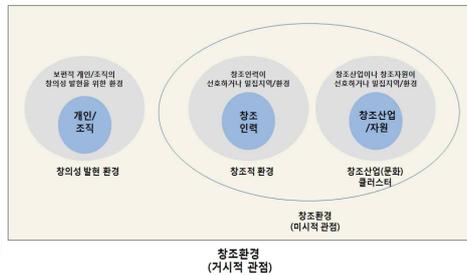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창조(문화)인력 유치



• 창조환경의 구성요소

- ① 창조적 인재/집단/조직
- ② 창조적 장소/환경/자원 (고유성, 독창성)
- ③ 창조적 지식/기술/혁신
- ④ 창조산업/창조경제/창조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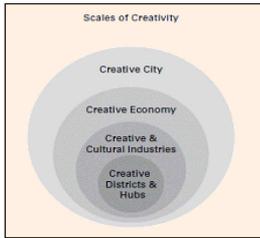


박은실, 창조인력 선호요인에 관한 연구, 2014

03.1-2. 창조생태계 조성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창조환경 및 생태계 조성



| | Policies | Strategies | Projects | Agencies |
|--------------------------------|----------------|-----------------------------------|------------------------------|---------------------------|
| Creative City | Official Plan | Waterfront Plan | Branding | TWRC TEDCO |
| Creative Economy | EcDev Strategy | Prosperity Agenda Tourism Plan | Festivals | Ec Dev Section Toronto |
| Creative / Cultural Industries | Culture Plan | Imagine a Toronto | TO Live with Culture | Culture Section TIFF |
| Creative Districts, Hubs | BIAs | Cultural Facilities Analysis | Creative Convergence Project | Artscape |

토론토 창조도시계획 프레임워크 (Creative City Planning Framework, 2008)

- 토론토 창조도시계획 프레임워크 대한 계획은 2003년에 세운 창조도시계획 "Creative City in 2003"에서 비롯됨. 특히 이 계획에서는 창조도시, 창조경제, 창의성/창조산업, 창조지구/허브 등으로 나누어 4단계의 창조성의 단계와 규모에 따라 창조도시계획이 수립됨. 각 단계는 독립적이며 동시에 관계성을 맺으며 발달. 각 단계를 아우르는 기본 원리는 도시 전반에 걸쳐 창조적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창조지구 조성

- 새로운 문화형성의 인큐베이터로서 장소의 **다양성, 진정성, 독창성의 보호**
- 창조지구의 조건은 **창의인재의 전문성, 문화적 독창성 및 수월성, 시장(market)기능의 보유** 등의 복합용도가 축적된 일 정공간을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제.
- 즉 창조지구가 기존 문화지구와 차별화되는 점은 **장소와 결합된 문화상품과 서비스들이 집적된 장소에서 시장(마켓)기능의 순환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

03.2-1. 통합적 문화계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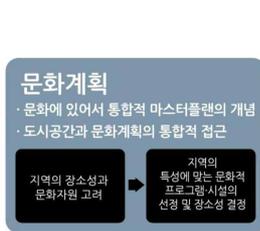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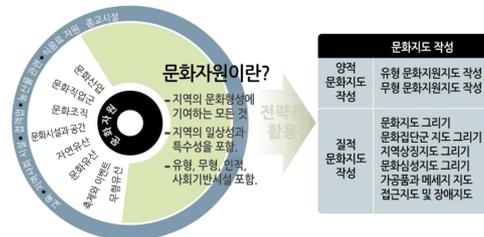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문화계획(cultural Planning)적 접근방식이 필요

- 대규모 개발 위주의 물리적 접근방식을 넘어서 소프트웨어와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 방식
- 물적, 인적, 자원의 프로그램별로 통합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문화환경의 개발.
- 창의인재를 유인하는 전략으로서 창의산업의 생태계 조성, 문화예술과 산업의 융·복합지구 조성방안, 복합용도지구 조성 방안, 문화환경계획을 통한 통합계획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창의도시 육성, 영역별 창의성의 상호 증진을 위한 지역, 도시, 지구별 산업 및 제도개선, 조성방 안에 대해 구체적 정책방향
- 특성화 발전을 통해 성장을 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창의경제의 최대 효과가 도시와 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문화계획과 문화기획과의 차이점



문화자원의 전략적 활용



허유정, 문화계획 모델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논문, 2013

03.2-2. 통합적 문화계획 구성요소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구성요소

| 항목 | 내용 |
|--------------|---|
| 창의인재 및 보유자원 | 문화예술인 등 창의인재의 유치, 창조적인 지역공동체 (예술인 수, 문화기획자 및 활동가, 창조적 커뮤니티 수 등) |
| | 문화예술창작지구, 예술가 집적지 |
| | 창조적 자원, 전통자원, 활동 및 프로그램 |
| 기반시설 및 창조산업 | 창조적 환경, 구도심재생, 산업시설 및 유희시설의 활용 |
| | 창조산업, 전통산업, 창조성 기반의 융·복합산업, 창조경제 (창조산업 종사자, 창조산업체 규모 및 수, 직종, 직업 등) |
| 교육과 학습체계 | 유관 교육기관 및 R&D, |
| | 산·관·학 협력체계, 지역학습시스템, 인재육성 프로그램, |
| 공공/민관협력 파트너십 | 공공 및 민관협력 파트너십, 시민참여 시스템 |
| | 창의적인 사업 진행 프로세스 |
| 네트워킹 | 지자체내, 지자체간, 네트워킹 |
| | 국제협력, 국제네트워크 가입 |
| 재원 및 파이낸싱 | 예산의 규모, 재원조달 방식 |
| 홍보 및 마케팅 | 사업의 홍보, 시민들의 인식정도, 국내외 마케팅 정도 |

35

03.3-1. 민관협력 모델과 시민참여 프로세스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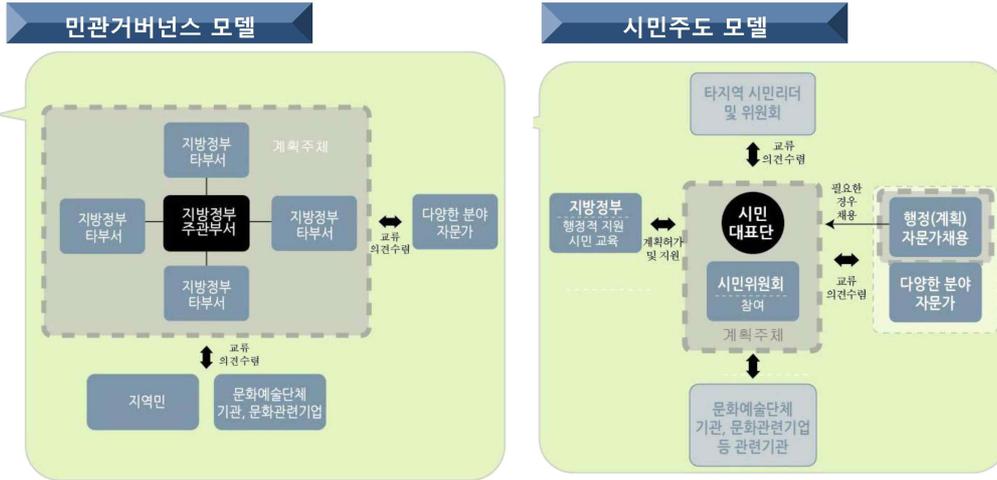
민관거버넌스 모델



허유정, 추계예술대학교 석사논문, 2013

03.3-2. 민관협력 모델과 시민참여 프로세스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 공동체(커뮤니티)형성, 연대활동(네트워킹) 등 휴먼웨어 중심의 문화활동
- 지역내 협치(거버넌스)와 민관사 협력(제3섹터), 참여자활동(웹2.0, 집단지성, 대중지혜 방식), 주민주도
- 민간의 조직력(창의적인 NGO, NPO), 인적자원의 양성(교육, 상호학습, 지식동아리)을 통해 문화도시 참여

03.4-1. 초협력, 네트워크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국가 간, 지역 간 네트워크

국가 : 플랑드르 DC (Flanders District of Creativity, Belgium)
: 글로벌 창조지역 네트워크 (벨기에 지방정부 창조지역 연합-> 국제네트워킹)

- 벨기에 플랑드르 정부, 경제 및 외무부처, e-정부 등이 플랑드르 지역의 창조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창설. 플랑드르 정부와 지식기관, 기업들의 네트워킹. 국제적인 창조지역과 네트워킹을 구축



□ 플랑드르 DC 네트워킹
- 창의성, 기업가주의, 혁신 및 국제화 등의 현 상향에 대한 연구
- 국제협력체제 구축 및 창의성의 의제들을 지닌 지역들의 국제네트워킹의 조정.
(예: 스코틀랜드, 카탈루냐, 롬바르디아, 바덴-뷔르템베르크, 론 알프스 등)
- 국제협력 펠로우쉽, 정책개발, Creativity World Forum

03.4-2. 초협력, 네트워크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국내 도시 간 네트워크

캐나다 창조도시네트워크 : The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CCNC)

- 1997년 밴쿠버 문화국의 스태이니셔티브 네트워크로 시작. 캐나다 창조도시들의 네트워크. 밴쿠버 시, 밴쿠버재단, 캐나다 예술위원회, 브론프만재단, 브리티쉬 콜롬비아 예술위원회, 캐나다문화유산부의 예산지원에 의해 2002년 NPO 창설. 100개가 넘는 도시들이(워킹그룹, 공무원) 회원으로 가입.

멤버쉽

| Population | Membership Fee |
|----------------------|----------------|
| Greater than 500,000 | \$3675 + tax |
| 300,000 - 500,000 | \$2100 + tax |
| 100,000 - 300,000 | \$920 + tax |
| 20,000 - 100,000 | \$395 + tax |
| Less than 20,000 | \$265 + tax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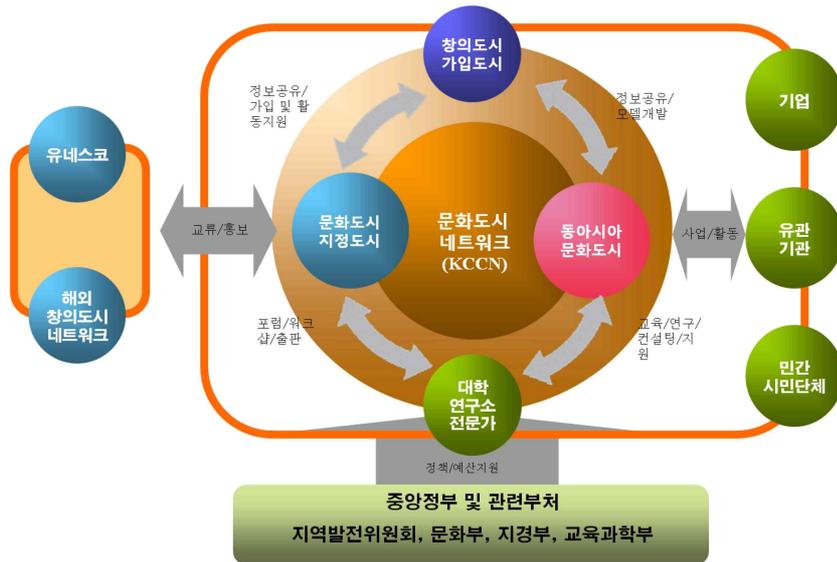
□ 역할 및 활동

- 톨킷 개발 (Cultural Planning; Cultural Mapping; and Public Art), 국제회의, 정보, 국제교류, 교육, 자료제공
- 멤버서비스 : 온라인 리소스 라이브러리, 교육, 훈련, 마케팅, 홍보, 자원조성 등

03.4-3. 초협력, 네트워크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국내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방안(CC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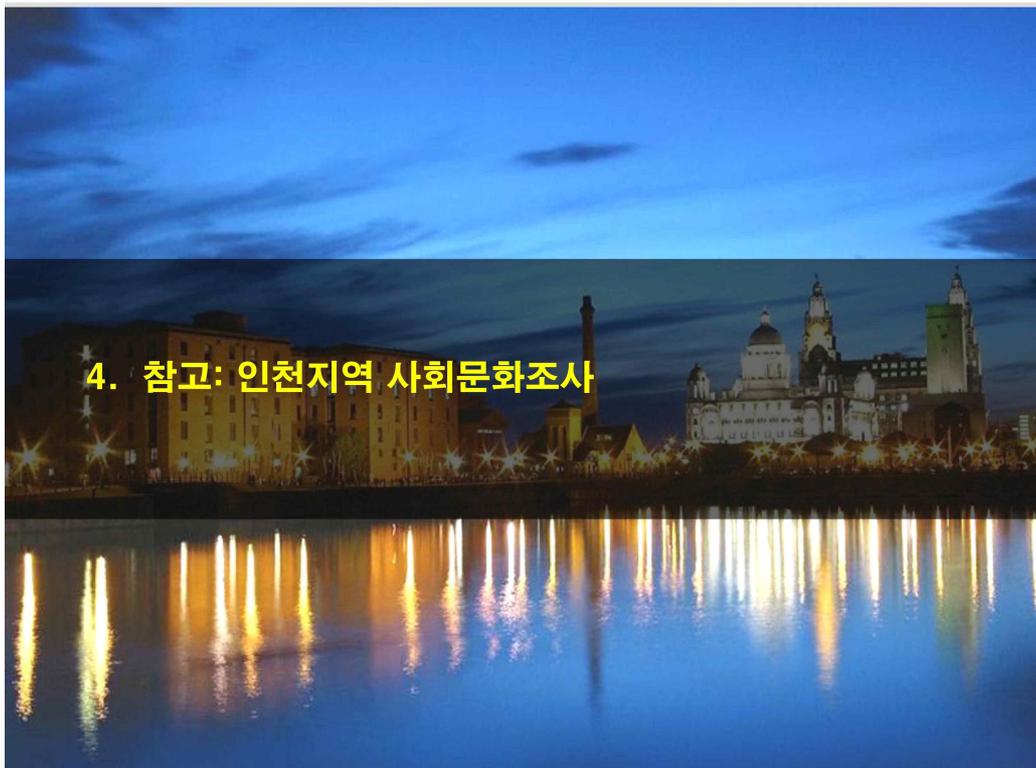
03.5. 부평 문화도시 시사점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시사점:

1. 부평 문화도시 조성의 명확한 목표의 설정 (음악도시)
2. 인천 부평지역의 유·무형 자원조사 및 사회문화조사
3. 조직의 구성
4.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구성
 - 창조생태계 조성
 - 통합적인 문화계획
 - 민관협력 시민참여
 - 네트워크
5. 실행
6. 평가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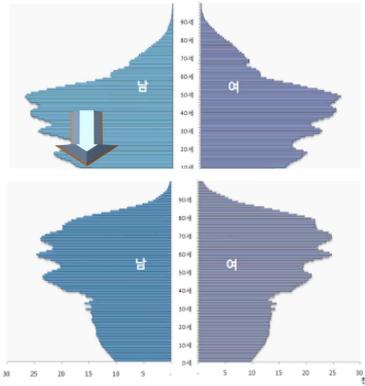


04.1-1. 대상지역의 사회문화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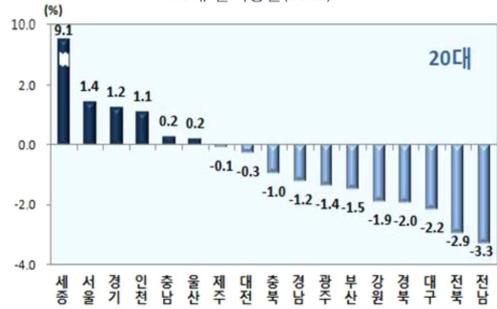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인구변동

[인천] 2040 인구변화



< 20대 순이동률(20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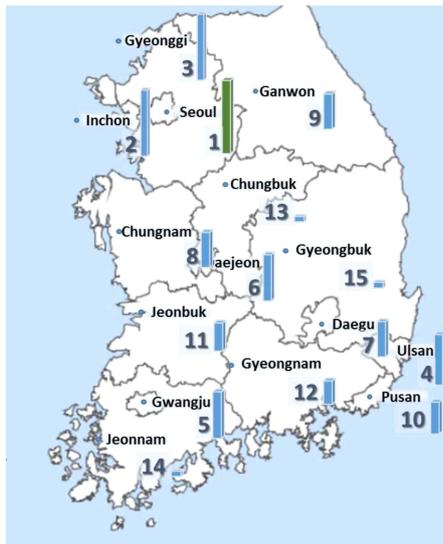
- 인천지역은 2040년까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반면에 20대 순이동률에 있어서는 세종시를 제외하면 수도권 지역은 상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인구세도 증가

자료: 통계청(2014), 「2013년 국내인구이동 통계」, 내부자료. 43

04.1-2. 대상지역 사회문화적 분석: 사회의 질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시도별 SQ 비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4)



| 시도 | SQ | 순위 |
|-----------|-------------|----------|
| 서울 | 6.45 | 1 |
| 부산 | 4.48 | 10 |
| 대구 | 5.03 | 7 |
| 인천 | 5.70 | 2 |
| 광주 | 5.51 | 5 |
| 대구 | 5.47 | 6 |
| 울산 | 5.58 | 4 |
| 경기도 | 5.60 | 3 |
| 강원도 | 4.57 | 9 |
| 충북 | 4.03 | 13 |
| 충남 | 4.59 | 8 |
| 전북 | 4.40 | 11 |
| 전남 | 3.95 | 14 |
| 경북 | 3.88 | 15 |
| 경남 | 4.27 |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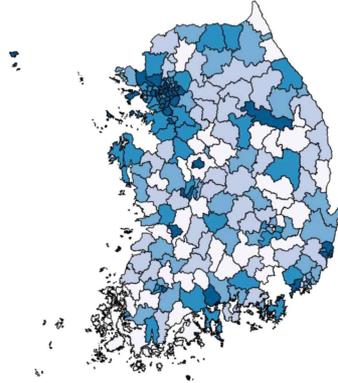
- 인천지역은 사회의 질 부문에서 서울에 이어서 2위에 랭크

장덕진 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현황해장기미래연구, 2014 44

04.1-2. 대상지역 사회문화적 분석: 사회의 질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시군구별 SQ지수 비교



- 시도별 부문에서는 인천시 8개구 중에서 중구, 연수구, 옹진군 등 3개구가 상위 10권에 랭크
- 반면에 부평구는 20위권 밖임.

| 상위 20개 지자체 | 하위 20개 지자체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서울특별시 중구 | 대구광역시 서구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강원도 고성군 |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충청북도 진천군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충청북도 괴산군 |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충청남도 금산군 |
| 대구광역시 중구 | 충청남도 서천군 |
| 인천광역시 중구 | 전라북도 김제시 |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전라북도 완주군 |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전라남도 나주시 |
| 광주광역시 동구 | 전라남도 곡성군 |
| 경기도 수원시 | 전라남도 해남군 |
| 경기도 성남시 | 전라남도 함평군 |
| 경기도 과천시 | 전라남도 진도군 |
| 경기도 오산시 | 전라남도 신안군 |
| 경기도 군포시 | 경상북도 영천시 |
| 강원도 영월군 | 경상북도 군위군 |
| 충청남도 계룡시 | 경상북도 의성군 |
| 전라북도 전주시 | 경상북도 영덕군 |
| 경상북도 울릉군 | 경상남도 창원군 |

장덕진 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환황해장기미래연구, 2014 ⁴⁵

04.1-3. 대상지역 사회문화적 분석: 빅데이터 분석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지역별 관심지수



: 2013년 8월 ~ 2014년 8월, 빅데이터 분석

지역별 공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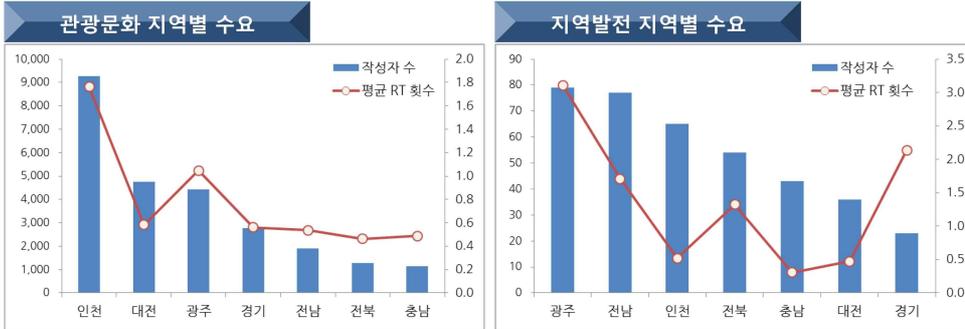


- 지역별로 인천과 경기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전남, 전북, 충남 지역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편임
- 공감 지수 측면에서는 충남에 대한 공감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남. 영향력 많은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파악됨
- 경기, 인천 지역은 RT되는 횟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중요성을 공감하는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장덕진 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환황해장기미래연구, 2014 ⁴⁶

04.1-3. 대상지역 사회문화적 분석: 빅데이터 분석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 관광문화 분야의 지역별 수요는 주로 인천 지역이 관심지수와 공감지수가 모두 높게 측정되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수요가 표출된 것으로 나타남
- 대전, 광주, 경기 지역은 비슷한 수준이며, 전남, 전북, 충남 지역은 매우 저조한 편임
-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별 수요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나, 그 중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인천지역의 지역발전 수요에 대한 관심지수도 상대적으로 높으나 공감지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장덕진 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현황해장기미래연구, 2014 47

04.1-4. 대상지역 사회문화적 분석: 시민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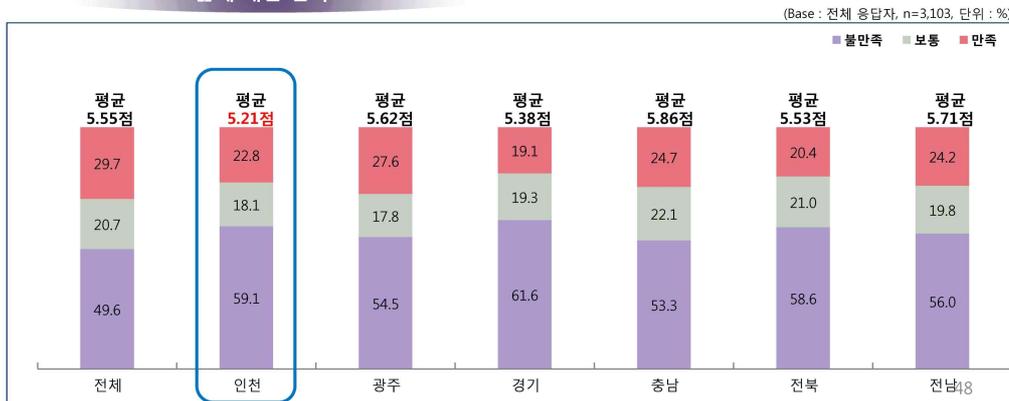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조사결과

2014년 9월 1일 ~ 2014년 9월 30일 / 3,000 표본

- ✓ 삶에 대한 만족도(11점)척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5.55점임
- ✓ 지역별로는 충남(5.86점)이 가장 높고, **인천(5.2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 불만족한다(0점~4점) 범주는 경기(61.6%)로 가장 높고, **인천(59.1%), 전북(58.6%)** 순임.

삶에 대한 만족도



장덕진 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현황해장기미래연구, 2014

04.1-4. 대상지역 사회문화적 분석: 시민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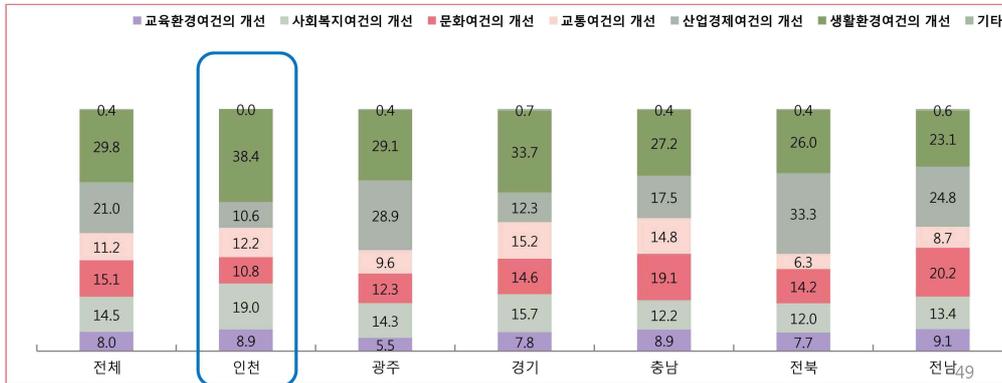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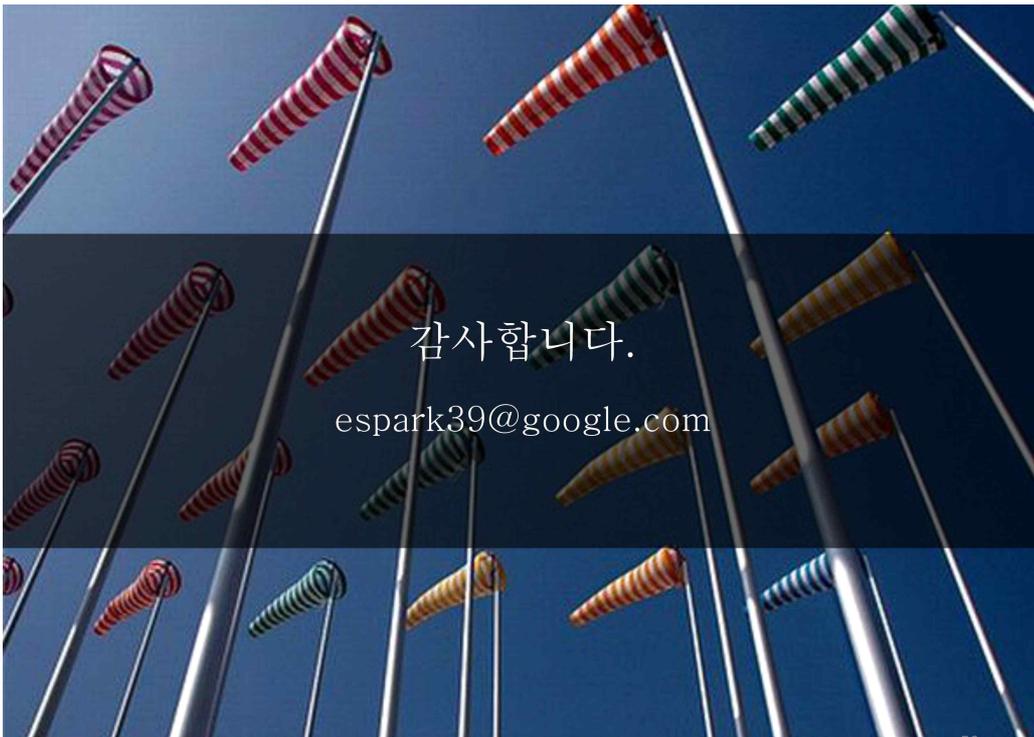
- ✓ 지역발전을 위해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생활여건의 개선'이 가장 높았으나, 전북(33.3%), 전남(24.8%)은 '산업경제여건의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남.

지역발전을 위해 주력해야 할 정책

(Base : 전체 응답자, n=3,103, 단위 : %)



장덕진 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환경해장기미래연구, 2014



감사합니다.

espark39@google.com

문화도시는 도시의 공유가치와
철학으로부터 시작

김 주 연 |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문화도시는 도시의 공유가치와 철학으로부터 시작

김주연(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이한호 대표님의 발제강연에서 ‘문화도시의 자생적 운영은 가능한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와 철학이 시작이자 절반이라는 부분은 저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문화도시가 되려면 우리는 문화도시로서 어떤 점이 가치적으로 보여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기 쉽습니다. 즉 어떻게 보일 것인가? 가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는 문화도시의 목표가 아니라 실은 결과인 것입니다. 문화도시의 출발은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삶의 질적 만족에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만족에 가치와 철학을 세우고 어떤 도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 그 결과로 문화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문화이냐 하는 것은 그곳에 사는 시민들이 그 도시에서 자부심을 갖고 행복을 느끼는 그 어떤 가치가 반영되면 그 가치의 문화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치가 음악이라면 그 도시는 음악도시일 것입니다.

저는 TED 강연을 자주 듣습니다. 거기서 사이몬 시넥의 재미있는 강연에서 나온 골든 서클이라는 개념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사람, 기업가들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개의 원은 큰 원 가운데 좀 작은 원이 들어가 있고, 아주 작은 원이 작은 원 속에 놓여있는, 원 속의 원, 또 그 속의 원 아주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가운데 있는 작은 원에 Why가 있고, 그 다음 원에 How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원에 What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지 안다. 몇몇은 어떻게 하는 지도 알고, 아주 적은 사람들은 왜 자신이 그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 사람들에게 왜 일을 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왜라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돈을 버는 것은 결과입니다. 왜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념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왜 부평문화재단이 존재 하는지 같은 것 말입니다.

그는 그 강연에서 컴퓨터를 예를 듭니다.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것들은 매우 아름다운 디자인에,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합니다." 구입하고 싶나요? 네. 우리들 대부분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마케팅, 영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새로운 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 연비가 좋으며, 가죽 시트가 있습니다.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컴퓨터 회사인 애플은 다르다는 거지요. 애플은 "우리가 하는 모두 것들, 우리는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믿습니다-Why,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는 우리의 방식은 제품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며,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How, 우리는 방금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What 구입하고 싶은가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애플은 본질 적으로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애플은 우리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확한 자신만의 신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임무(당신이 하는 일)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신념(당신이 하는 이유)을 구입합니다."

이 골든 서클에 부평의 문화도시에 관한 오늘 논의가 혹시 What 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진정성 마케팅이라는 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비즈니스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골든 써클 그 맨 가운데 핵심인 Why 에 부평시의 진정성 있는 가치와 철학을 놓고 그 철학에서 시작해서 How 그리고 그 결과로서 문화What 문화도시가 나타난다면 그 도시는 진정부평의 문화도시로서 지속가능성을 갖게 할 힘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도시로 유명한 빌바오는 'Design and Art Mecca'를 가치와 철학으로 갖고 있었고, 런던은 'Cool Britannia', 그라츠는 'Share experiences and Create new opportunities' 라는 철학 Why가 있었습니다. 부평에 사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행복을 느끼는 가치와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우리는 우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도시로서의 부평의 한계와 가능성

최 정 한 | 공간문화센터 대표

문화도시로서의 부평의 한계와 가능성

최정한(공간문화센터 대표)

□ 부평의 문화적 정체성

- 70년대 공단도시 조성 후 생산지 배후도시 및 서울의 베드타운
- 도시로서의 정체성조차 불분명하며 문화적 삶의 기반이 거의 부재
- 부평 풍물축제 등 오래된 연단위 대형축제가 있지만 도시 아이덴티티가 의문시

□ 문화도시의 필요성

- 문화불모지 부평에서 문화예술로 지역을 재구성해야 할 절실함이 존재
- 문화예술로 시민들의 삶을 고양하고 그 에너지를 끌어내는 도시문화정책이 중요한 과제

□ 문화도시를 추동할 수 있는 마중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과거 미군부대 파생문화로서의 대중음악이 음악융합도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혹은 도시재생, 문화도시의 사업도구로서 음악융합도시를 설정하고 있는가
- 음악융합도시로 가기 위해 어떤 에너지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것을 통한 생태계 형성이 가능한가
- 음악융합도시를 끌고 나가기 위한 미래의 공간에 대한 그림은 어렵듯 그려지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 굴포천 복원 등 도시재생사업들과 음악융합도시의 전망이 과연 일치될 수 있을지 의문

□ 부평에 대한 문화계획의 필요성

- 문화불모지 부평을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를 재구성하는 그랜드디자인 필요
- 음악융합도시사업은 그야말로 시민의 에너지를 자극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지역의 삶으로 확장시켜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
- 부평 풍물축제의 재구성, 부평 문화의 거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등이 우선되면서 그것을 문화지형으로 확장시켜내는 사업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MEMO

M E M O

MEMO

2015 부평 문화 포럼

2회차 문화도시의 자생적 운영은 가능한가?

2015년 10월 27일 인쇄

2015년 10월 27일 발행

주 최 |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후 원 | 부평구